

한국의

주요
이슈

신학 이단 사이버 전문언론

바른 미디어

저자_ 조민음

미디어

신학 이단 사이버 전문언론

바른 미디어

한국의

주요

이단

사이비

서문

.....

한국 이단과 사이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며 많은 피해 사례를 양산하는 신천지는 아시아 16개국, 유럽 9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5개국, 북아메리카 2개국, 남아메리카 6개국 등 총 40개국에 진출해 있다.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 진출하며 전 세계에 202개의 교회를 세웠다. 생명의말씀선교회 ^{이요한} 구원파 는 81개국에 진출해 338개의 센터를 세웠다.

통일교는 공식적으로 195개국에 그들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성범죄자가 교주인 JMS에 미혹되는 외국인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문화나 언어 보다 한국의 이단, 사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인에게 제공될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대책에 걸림돌이다.

신학·이단과 사이비 전문 언론 바른미디어 ^{bami.kr, 조민음} 발행인 는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등 다섯 개 단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으로 해외에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 등을 해외 각국 공공 기관에 알리고, 정체를 모르고 이들과 관계하는 민간단체 등에 전달해 해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번역 작업은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몇 분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이다열 님 ^{영어}, 김미영 님, 요아형 님 ^{중국어}, 고병욱 님, 원민혜 님, 이효숙 님 ^{일본어}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24일
바른미디어 조민음 발행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신천지는 한국에서 최대 교세를 갖춘 사이비 종교다. 교주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정통교회를 출석하던 그는 당시 한국 사회에 유명했던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천지를 창설했다. 2019년 현재 신도 수는 약 20만 명이며 한 해 평균 1만 명이 신천지 신도가 된다.

무엇을 믿나?

신천지의 교리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다. 한국의 주요 교단은 신천지를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로 믿는다. 신천지는 초림 때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이긴 자인 이만희라고 믿는다. 비유로 된 성경을 통달한 곳은 신천지뿐이라며, 요한계시록의 상징, 비유들을 신천지 역사에 대입해서 해석한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식이다. 이를 실상교리라고 한다.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이만희는 그 천국의 실상을 보고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6,000년 동안 감춘 비밀을 풀어주는 존재다. 최근 몇 년간 신천지는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 신천지로 이름 하겠다는 민망한 주장도 서슴없이 한다.

포교방법

신천지의 황당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약 20만 명에 달하며 매년 약 1만 명이 신천지에 미혹된다. 교세를 넓히는 일등 공신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 포교방법이다. “신천지 같은 이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짓말까지 동원된 포교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 최근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소위 ‘공개포교’를 하기도 하지만, 계속된 위장 포교로 지친 신도를 단속하기 위한 내부용일 뿐이다. 신천지에 대한 반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공개포교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신천지의 위장 포교는 교회 밖 포교와 교회 안 포교로 나눌 수 있다. 두 포교 모두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관계를 맺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천지는 포교를 위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포교도중에는 각종 거짓말이 난무한다. 선교단체 간사, 기독교 관련 기관 직원,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사칭, 교단 마크를 도용한 위장 교회, 위장 문화센터,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각종 위장 설문조사를 통한 신상 파악, 아르바이트 사이트, 인성 강의, 멘토링 수업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긴 어렵다. 또한 내게 오는 모든 접근을 신천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간사, 전도사, 목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접근하는 사람이 소속을 밝히고 명함을 내밀어도 해당 단체 혹은 교회에 문의해야 한다. 설문조사 시에 신상을 적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신천지 포교의 끝은 성경공부로 이어진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할 성경공부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으로 데려가기 위해 각종 사칭과 거짓말이 이뤄진다. 신천지의 성경공부는 2~3개월 일대일 혹은 소그룹으로 시작하고 이후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정도 되는 학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센터에서 6~7개월 과정이 이어진다. 신천지는 성경공부를 시작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절대로 부모나 교역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과의 만남이 위와 같은 형태의 성경공부로 이어졌다면 당장 성경공부 모임을 그만둬야 한다.

피해사례

한국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특히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했다. 이만희는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믿지 않는 가족과는 “갈라서라^{이혼}”고 설교했고, 많은 신도가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혼서류를 내밀었다. 탈퇴자 납치, 집단폭행,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감시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해 많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신천지, 평화단체 앞세워 해외진출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해외 40개국에 진출해 22,478명의 신도^{2019년 1월 13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은 한국이든 해외든 큰 차이는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두고 결국에는 성경공부로 유도한다.

신천지는 최근 몇 년간 자신들을 평화단체로 포장해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평화를 키워드로 한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위장단체는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IWPG^{International Women's Peace Group}, IPYG^{International Peace Youth Group}다.

신천지가 평화행사를 행사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도를 결속하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교리가 한 몫을 차지한다. 신천지의 평화행사에는 많은 외국인이 초청된다. 외국인들의 참석은 신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천지는 매년 1월 1일 표어를 제시해,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한다. 2014년을 시작하며 ‘흰 무리 창조’라는 표어를 걸었다. 신천지는 요한 계시록 7장 9절의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흰 무리’라고 부른다. 인 맞은 신도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늘의 순교한 영혼들과 합일한다고 믿는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교리인 신인합일이다. 신인합일이 이뤄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존재가 흰 무리다.

신천지 수뇌부는 평화행사를 개최하며 몰려드는 외국인을 흰 무리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쳤다. 신도들은 그들을 보며 “흰 무리가 몰려온다”는 착각에 빠진다.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장관이든 간에 그들은 변개된 신천지 교리를 확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신천지의 초대로 한국에 방문했던 네덜란드의 한 청소년 단체 회장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신천지의 위장종교 행사에 이용당했다는 수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신천지는 만국회의를 통해 국제법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을 펼친다. 국제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이다. 대표적인 국제법에는 조약이 있는데,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나뉜다. 양자조약은 두 국가 간의 조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자 교섭 과정을 통해 제정된다. 다자조약은 세 나라 이상의 다수 국가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UN 등 국제기구의 회의를 통해 제정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제한적으로 일부 국제기구도 국제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신천지의 국제법 제정 주장에 대해 정부 기관 관계자는 “국제법 제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다. (국제법 제정은) 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가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사람들, 즉 현직 국가 원수 혹은 국내법의 절차를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제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하 하나님의교회 는 안상홍 1985년 사망 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출신인 안상홍은 1964년 하나님의교회 예수증인회를 창설하고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상홍 사망 후 몇 분파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교세가 가장 크고, 피해 사례가 많은 곳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교회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상홍이 살아있을 당시 엄수인 이라는 여성이 어머니 하나님론을 주장했고 안상홍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했다. 안상홍이 죽자 현재 총회장이자 실세인 김주철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내세운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이어받지 않은 아류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믿나?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한다.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라고 믿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곱해해, 어머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교회에 십자

가를 세우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또한 1988년, 1999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며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해 물의를 일으켰다.

종말을 주장하며 재산 갈취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재산 헌납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공포감을 심는 동시에 도피처를 제시했다. 도피처는 ‘시온’ 즉 하나님의교회 라고 가르쳤다. 신도들은 ‘북방에서 큰 재앙과 멸망이 시작되면 시온으로 도피하라’라고 교육받아왔다. 탈퇴자들에 따르면 ‘북방’은 ‘북한’을 뜻한다. 북한의 핵 도발을 기점으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의교회 건물로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도피처 건축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좋은 명분이었다. 신도들은 “종말이 오므로 재물을 땅에 두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을 받을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적금과 보험 해약은 물론,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면서까지 현금하는 신도들이 발생했다. 건축현금은 하나님의교회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건축현금이 십일조보다 일만 배 이상인 지역도 있었다.

하나님의교회의 신도 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건축은 신도 수 증가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과 피해자들은 신도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탈퇴자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 자연스럽게 출석 신도 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현장 조사와 탈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년 중반 이후 하나님의교회 교세는 급격히 줄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들은 국내 하나님의교회 출석 신도 수가 2만 명 선이라고 분석한다.

한 탈퇴자는 “하나님의교회의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교세가 확장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건물 마련은 교세 확장이 아닌 종말 교리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하나님의교회가) 건축 혹은 건물 매매를 남발하고 이를 지역 뉴스에 기 사화해 마치 교세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새로운 독립건물은 주변 두세 개의 임대 단위 건물이 합쳐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두세 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한 개의 교회가 생겨난 셈”이라고 밝혔다.

포교방법

하나님의교회의 대표적인 포교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가 담긴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되나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등이 대표적인 멘트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로 영상 보여주며 접근하는 경우다. 어머니 하나님 홍보 영상, 하나님의교회 자체 홍보 영상 등을 보여주며 접근한다. 천재지변 등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 주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셋째,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한 포교다. 하나님의교회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많이 접근한다. 다수의 신도가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시기의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진전이다.

봉사활동 주의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설파에 따른 재산 갈취, 이혼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ASEZ가 대표적인 하나님의교회 봉사단체다.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노출해 자신들을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로 포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원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언론에서는 구원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언론에서 ‘사이비’ 같은 사회적인 용어는 사용했지만 ‘이단’, ‘구원파’ 등 종교적 색채를 띤 단어는 사용하지를 꺼려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직후 구원파, 이단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명인 구원파와 관련된 보도들은 한 달가량 거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공식 명칭

구원파에 접근함에 있어 이들의 공식 명칭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구원파라는 이름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견지하기에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며 붙인 별칭이다. 구원파는 공식 명칭이 아니며 한 단체도 아니다. 한국 구원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 사망, 유명인 사망, 유명인의 교회 내에서의 지나친 사업행위에 반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탈퇴해 새로운 분파를 형성한 이요한의 생명의말씀선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가 있다. 세 단체는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죄관

구원파는 구원관이 정통교회와 다르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구원파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 나에게 ‘죄’라는 존재가 있다가 구원받으면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구원받은 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죄는 존재가 아닌 관계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과거},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미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요한 구원파의 시한부적 종말론

이요한 구원파는 종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종말의 일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략 어느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약 80세인 이요한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하면서 시한부적 종말론을 설파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사건 등을 지나치게 현시대에 끼워 맞춰 해석한 결과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의 사건은 오늘날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식이다. 이를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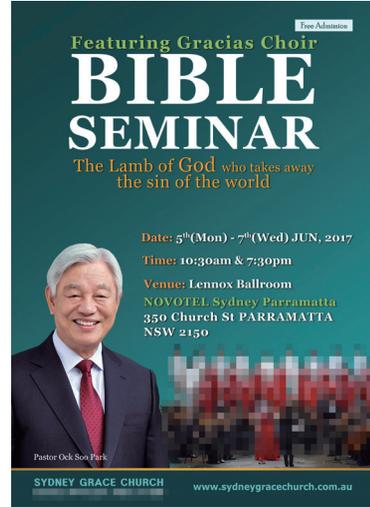
박옥수 구원파의 다양한 문화 및 포교 활동

문화를 이용한 포교 활동의 선두주자는 박옥수 구원파다. IYF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국제청소년연합^{KCA}는 수많은 대학에서 활동한다. IYF는 월드문화캠프, 세계청소년장관포럼, 세계대학포럼, 대학생리더스컨퍼런스,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세계문화엑스포, 굿뉴스코해외봉사단, 영어말하기 대회 등 대학생, 청년들이 관심가질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IYF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석하고, 여러 나라의 장·차관급 인사, 국회의원, 대학총장,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와서 강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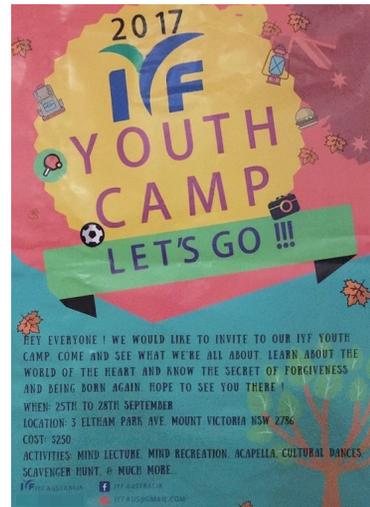
물론 이들이 모두 박옥수 구원파라서가 아니다.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달라는 종교색을 배제한 구원파의 요청을 받고 온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위장 행사를 하지만 IYF 행사들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니, 행사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박옥수 구원파 예방의 지름길이다.

최근 몇 년간 박옥수 구원파에서 공들여 온 포교방법이 마인드교육원을 이용한 강의다.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각종 관공서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마인드 및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마인드교육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설립 이후 2015년 11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4,880회 강의를 이루어졌고, 참석자수는 3,860,000여 명에 달한다. 마인드교육은 종교색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마인드교육은 박옥수로부터 시작했는데, 박옥수는 마인드강연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마인드강연을 앞세워 해외에까지 진출하며 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박옥수 구원파는 CLF^{Christian Leaders Fellowship, 기독교지도자연합}와 한국기독교연합^{KCA}을 만들어 포교에 활용한다. 이 명칭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CLF는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Christian Lawyer's Fellowship^{CLF, 기독교법률가회}과 이니셜이 같다. 한국기독교연합^{KCA}은 정통교단의 연합기구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연합^{KACC}과 이름이 같고 이니셜만 다르다.



박옥수 구원파의 호주 세미나 홍보 포스터



호주 IYF 월드캠프 홍보 포스터



박옥수 구원파가 호주에서 진행한 CLF 콘퍼런스 홍보 책자

공동육아커뮤니티를 만들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포교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에서 인지도 높은 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은 박옥수 구원파 신도들이 만들었다. 이들은 2016년, 서초구 양성평등지원 사업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BS와 KBS1 라디오에 활동이 소개되었고, 서초구 내곡동 주민참여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했다. 한국의 도시인 서울, 대전, 강릉 등지에 지부를 두고 지역구 정치인들과도 소통한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서울 서초구의 맘키움을 필두로 수원·의정부의 맘오니, 대전의 맘소울, 대구의 맘드림 등이 공동육아커뮤니티를 구성해 활동한다. 이들은 부모와 아이가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마인드교육을 병행하고 마인드교육원의 강사로 박옥수 구원파의 유관기관인 국제마인드교육원 소속의 강사를 배치한다. 대다수가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다. 이외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앞세운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거나, 『Tomorrow』라는 잡지를 제작해 전국 유명 커피숍에 배포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하 통일교 은 문선명 1920년생, 본명 문용명 에 의해 창설되었다. 문선명은 1935년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체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 중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 6개월간 몸담았던 그는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무엇을 믿나?

한국의 자칭 재림주들이 주장한 교리는 대동소이하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한다. 예수님은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났으며 동정녀 탄생 역시 부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본래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에 실패했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문선명이 성경에 기록된 동방인 한국에 재림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주장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사탄과 성관계를 했다는 비유이고 하와는 다시 아담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사탄의 피가 아담의 후손에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타락하고 사탄의 속박 아래 놓인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돌려놓는 일을 탕감 복귀라고 말한다. 통일교에서 문선명은 참 아버지, 그의 아내 한학자는 참 어머니로서 이 참 부모는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라고 믿는다. 문선명이 사망하고 한학자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다. 한학자는 자신이 육천 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이며 원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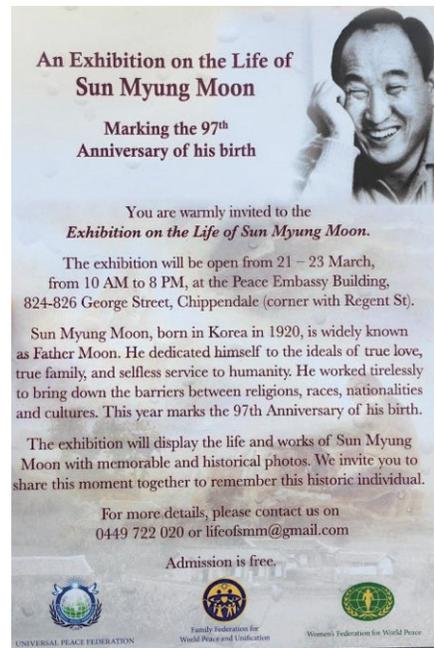
합동결혼식의 의미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많이 알려진 행사다. 합동결혼식은 통일교 식의 구원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이 참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 결혼축복을 받음으로 혈통전환 즉 깨끗한 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합동결혼식에는 성주식, 탕감봉 행사, 삼일행사 등 3대 의식이 있다. 성주식은 성찬식과 같은 의미로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심으로 사탄의 피를 뽑는 의식이다. 탕감봉 행사는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세 차례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 때를 맞는 의식으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탕감봉 행사 이후 40일 뒤 3일 동안 성관계를 하고 가정맹세를 통해 축복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

참 가정인가 거짓 가정인가

참부모라 주장하는 문선명과 한학자의 가정은 참 가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지난 1998년 문선명의 큰 며느리였던 홍난숙은 문선명 가정의 실체를 담은 *In the shadow of the Moons*를 펴냈다. 이후 미국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문선명 명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문선명의 가족은 권력을 두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문선명의 종교적 후계자로 7남 문형진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그런데 문 씨 사후 한학자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그 자리를 꿰찼다. 한학자의 신격화에 문형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했고, 한학자는 문형진을 패륜아라고 비난했다.



통일교가 호주에서 포교하며 배포한 전단지

통일교와 일본

통일교는 일본에서 세를 불려가며 활동해 왔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통일교를 지탱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인 신도들은 한국이 재림주 즉 문선명의 나라이고 자신들의 조상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교리에 세뇌되어 왔다. 통일교는 도장, 도자기 등의 물품에 영력이 있다고 속여 신도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영감상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일본에서는 기독교단과 더불어 변호사 등이 조직을 이뤄 통일교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영감상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라 통일교의 일본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JMS로 알려진 집단이다. 교주 정명석은 1945년 3월 16일, 충남 금산의 월명동에서 6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1살 때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제대 이후에는 천국, 지옥, 영의 세계를 오갔다고 말한다. 금산 지역의 통일교에 입교해 통일교 승공연합에서 반공강사로 활동했다. 1975년에는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978년 말 고향을 떠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80년 서울에 세운 애천교회가 현 JMS의 모체로 알려진다. JMS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복음선교회다. JMS는 정명석의 이니셜인데,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Jesus Morning Star라고 말한다.

희대의 성범죄자

정명석은 희대의 성범죄자로 기억된다. 정명석에게 바쳐지는 여신도들 프로필과 정명석을 여보, 주님 등으로 부르며 신도들이 찍은 누드 동영상 등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999년부터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해외로 나가 도피생활을 했으나 2007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준강간, 강간 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2018년 2월 18일, 전자 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 했다. 정명석의 엽기적인 성 문제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도 벌어졌고 각국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 한 바 있다.



JMS 호주 탈퇴자 인터뷰 보기

주요 교리

JMS는 정명석을 이 시대의 메시아로 믿는다. 정명석과 정명석이 인정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휴거했다고 믿는다.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을 성자 승천일이라며 정명석에게 임했던 성자가 정명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승천했다고 주장한다.

정명석 수감 중에도 여전한 활동

정명석이 수감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다른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JMS에 대한 대책과 경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등의 교세와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지 못했다. JMS는 정명석의 수감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가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JMS의 가장 대표적인 포교 방법은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 예술행사 등이다. 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역시 포교다. 자신들의 성경공부 모임 혹은 단체로 포섭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다. 모델, 치어댄스, 축구, 음악 동아리 등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모임을 만들어 관계 맺기에 힘쓴다.

이단과 사이비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



한국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매년 수만 명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다. 이들의 해외 진출 또한 활발하다. 한국이든 해외든 포교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나날이 확장되는 이단과 사이비의 교세와 급증하는 피해 사례에 비해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단순하다.

첫째, 이단과 사이비의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단과 사이비는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는 동시에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 혹은 사이비, 참여 금지, 예의주시 등으로 결의한 단체들의 공식 명칭을 숙지하면 이단 대책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각종 위장과 사칭에 주의해야 한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단과 사이비는 위장 교회, 위장 동아리 등을 운영한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사칭은 기본이고 교단의 로고를 도용해 교회 간판을 만든다.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경우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회의 소속 교단을 확인하고, 교회가 해당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재확인하는 일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다. 대학가의 위장 동아리와 위장 행사는 이단과 사이비의 주 포교 방법이다. 성경공부, 축구, 댄스, 악기 동아리 등 가용한 모든 동아리를 만들어 포교에 활용한다. 이단 신도인 재학생이 강의실을 대관해 이단 신도를 강사로 세워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가 학교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안심하면 안 된다. 참석하는 행사가 학교 측에서 인지하는지, 주최자가 누구인지, 연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 시 개인 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설문조사는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고전적인 포교방법이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상자의 종교, 전화번호, 학교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설문조사가 아니라 신상조사인 셈이다. 설문조사 후 성실히 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설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며 만남을 유도한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교회 밖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위장, 사칭, 만남 등의 끝은 성경공부다. “성경공부가 시작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가족, 교역자 등에게 비밀로 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성경공부는 거의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다. 신천지는 “신천지 같은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단과 사이비의 성경공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만 참석하지 않아도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신천지만 해도 매년 1만 명씩 빠진다.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 모임을 안심하고 시작한 결과다. 우연한 만남이든, 계획된 만남이든 인간관계를 통해 교회 밖 성경공부를 시작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단과 사이비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방법도 사용하나요?”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나날이 진화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포교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보다 ‘접근 후의 종착점이 성경공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세뇌와 종교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메커니즘

사이비의 문자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이비로 인해 발생한 큰 피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이비를 단순한 한 줄로 정의하기를 거부한다. 종말의 날짜를 정하고, 특정한 인물을 신격화해 사람들을 미혹한 사이비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단과 사이비의 허황된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사이비에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낳는다. 성범죄자 혹은 범죄자를 시대의 구원자로 믿거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행위 등은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원인은 허황된 교리에만 있지 않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사람의 심리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이용한다. 관계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관계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간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 중에 처음부터 그들의 교리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리는 이차적인 문제다.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혹은 그 외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반드시 작용한다. 가정 혹은 소속된 공동체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종교색을 배제하고 친절한 존재로 다가올 때 큰 매력을 느낀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탈퇴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JMS^{정명석}에 빠져있으면서 하나님의교회에 왜 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신천지에 빠져있으면서 JMS에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각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가진 고유의 특징이 있고, 빠진 사람은 그 고유함에 반응했다는 방증이다. 관계든, 가정 문제든, 권위적인 교주에 굴복했든,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데는 교리 외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문제는 교리 외에 다양한 이유에 반응해 미혹된 신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점차 중독될 때 발생한다. 정통 교회에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듯 이단과 사이비도 교리를 철저하게 신뢰하

는 자가 있는 동시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다. 교주들은 반신반의하는 신도들을 옥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뇌, 세뇌를 통한 중독이다.

희소성 모델 제시, 세뇌와 중독으로 이어져

세뇌가 어떻게 중독으로 이어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교 중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 중독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된 중독의 한 분야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마약, 약물 등의 물질에 중독된 물질 중독과 도박, 일 등 행위에 중독된 행위 중독으로 구분한다. 행위 중독은 다시 독서, 낚시 등 행위가 눈으로 확인되는 유형의 중독과 관계, 연예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한다. 종교 중독은 대표적인 무형의 중독이다.

종교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적 요소에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신앙생활의 동기와 원천이 하나님이 아닌 관계, 직분, 목사 등인 경우다. 이단과 사이비는 참 하나님이 아닌 교주라는 왜곡된 신을 만들고 교주가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단과 사이비는 100% 종교 중독이다.

중독의 정도도 다르다. 경증 중독이 있는가 하면 중증 중독이 있다.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나 간부들은 신도들을 중증 종교 중독자로 만드는 데 애쓴다. 중증 종교 중독자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뇌’다.

교주가 신도들을 세뇌시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과정은 ‘희소성 모델 ^{혹은 제로섬 모델}’로부터 출발한다. 희소성 모델은 앤 윌슨 새 프가 『중독사회』에서 나열한 스무 가지가량의 중독의 특성 중 하나다. 희소성 모델이란 물질 ^{혹은 그 무엇}이 희소하여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없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희소성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중독을 낳는다.

사이비 종교는 구원을 빌미로 희소성 모델을 작동한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 수 144,000 안에 들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신도들은 144,001등이 되지 않도록 전 삶을 바치기 시작한다. 144,000을 향해 전 삶을 바치는 신도는 관심분야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터널 비전 현상에 빠지게 된다. 터널 비전 현상이란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할 때 터널의 출구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어둡게 보이는 시각 현상을 뜻한다. 심리학에서는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할 때 사용한다.

의존성이 낳은 보상독점구조, 메커니즘 완성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단체를 탈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세뇌당한 신도들은 단체를 벗어나면 구원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한다. 실제로 교주들은 이곳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신도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하나님의교회를 탈퇴한 한 신도는 탈퇴 후 토요일에 정통교회의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에도 들어가기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몸은 하나님의교회에서 탈퇴했지만, 여전히 탈퇴자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두려움은 의존을 불러온다. 공포는 의존성을 불러온다. 신도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비 종교에 더욱 빠져든다. 공포가 불러온 의존성은 보상독점구조를 낳는다. 보상독점구조란, 말 그대로 보상을 독점한다는 의미다. 교주는 신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채워지도록 만든다. 신도는 단체 밖을 보아서 안 된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 정보를 차단하는 일은 사이비의 구습이다. 신도가 좋아할 만한 것, 신도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단체 안에서 채워주어야 한다. 여기서 가족을 등지는 이유가 설명된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가족을 등지고서라도 사이비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세뇌되었고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학박사이자 의존증심리학자 이소무라 다케시는 자신의 저서 『이중세뇌』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상의 독점과 의존증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상이 교주의 손에서 부여되어야 한다. ... 사이비 교단 이외의 인간관계를 전부 끊도록 만든 것이 그들의 일이다. ‘교주 외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족으로부터도 떼어놓고 다른 인간관계도 단절시켜 독점적인 상황을 구축한다. ... 사이비 교단의 보상 독점 구조는 의존증이 미치는 효과와 매우 닮았다. 왜냐하면 담배, 술, 약물, 섹스, 도박, 게임과 같은 의존증 행동은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시켜 신경의 감수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의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해도 100퍼센트 즐길 수 없다. 식사든 일이든 휴식이든. ... 이혼하자는 협박을 받아도 좀처럼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에게 아내와 아이는 이미 행복을 느끼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의존 대상 외에는 의지할 데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¹⁾

신도에게 사이비란, 가족이나 다른 그 무엇도 채워준 적이 없던 자신의 갈급함을 해소해 준 존재, 즉 보상을 주는 존재다. 정리하면 교리에 세뇌되기 시작한 신도는 구원이라는 희소성 모델로 인해 터널 비전에 빠지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사이비는 그 두려움을 보상독점구조로 해결해 신도를 철저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이다.

1) 이소무라 다케시, 『이인애 역, 이중세뇌』(더숲, 2010), 75-79.



한국의 주요이단 사이비

신학 이단 사이비 전문언론

바른 미디어

